

## 勞動力 接近方法과 韓國의 勞動力 資料

張 潤 植

센서스나 經濟活動에 관한 調查에서 대략 15歲에서 64歲까지로 잡고있는 勞動力年齡人口의 經濟活動을 分析하는 데는 基本的으로 두가지 概念的 接近方法이 있다. (1) 所得雇傭 接近方法과 (2) 勞動力 接近方法이 그것이다. 前者는 주로 勞動力 年齡에 속한 個人의 日常 經濟活動이나 地位에 關心을 두고 있으며 後者는 各 個人이 센서스나 調查 當時에 雇傭中인가의 與否와 이를 기준으로 한 一定期間에 있어서의 經濟的 活動에 關心을 둔다.

日帝 植民地時代에 있어서는 所得雇傭 接近方法을 使用하여 勞動力을 測定하였다. 그러나 이 方法은 總勞動力人口의 規模와 勞動力人口의 職業構成을 把握하는 데는 有用하지만 勞動市場에 있어서의 就業 및 失業의 程度를 測定하는 데는 不適當하다. 이 方法은 特定한 時間에 實際로 일을 했는가의 與否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 職業에 從事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되는 가 하면 勞動年齡에 도달해 처음으로 就業機會를 찾는 사람을 勞動力에 포함시킬 수 없는 短點이 있다.

勞動力 接近方法은 所得雇傭 接近方法의 이러한 短點을 修正하기 위해 1930年代 美國에서 開發된 方法으로, 特定時點에 있어서 就業上의 地位와 함께 이를 기준으로한 一定期間內에 있어서의 實際 勞動活動 與否에 基礎하여 勞動力을 다루는 方法이다. 經濟活動人口 또는 勞動力은 이에서 派生된 概念으로 就業과 失業으로 分類된 사람들의 總和를 意味한다.

解放後 1955, 1960, 1966년에 實施한 센서스에서는 勞動力 接近方法을 使用하여 經濟活動에 관한 資料를 蒐集하고 있다. 이들 센서스에는 經濟活動上의 地位, 從事上의 地位, 產業 및 職業別 分類에 대한 項目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각 센서스마다 項目의 種類 및 分類가 一定치 않아 勞動年齡人口 코호트의 時間的 趨勢를 分析하는데 難點이 있다.

勞動力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資料로서는 1963년부터 經濟企劃院에 의해 實施되고 있는 經濟活動人口 調查資料를 들 수 있다. 이 調查는 14歲以上人口의 0.1%를 標本으로 하여 每 季節마다 實施되며 그 結果는 一年에 한번 年例報告書에 發表된다. 이 報告書에는 季節別 經濟活動率等 勞動力에 관한 年例統計가 나타나 있으나 季節別 勞動力參加率 勞動時間等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勞動力 接近方法은 勞動市場이 明白히 設定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이 農業에 從事하는 勞動力人口에 適用할 때에는 여러가지 概念的 問題가 發生한다. 本 論文에서는 低産業化 經濟의 勞動力人口에 이 方法을 適用하는데 대해 最近 일고 있는 批判을 中心으로 韓國의 勞動力 資料의 性格을 檢討하고자 한다.

農業活動의 季節的 特性으로 인해 韓國의 勞動力 參加率은 季節의 起伏이 심하다. 年例報告書에 의하면 勞動力 參加率은 一年中 6月이 가장 높고 12月이 가장 낮다. 이러한 季節의 起伏은 農業部門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955, 1960, 1966年度 센서스는 각기 다른 달에 施行되었기 때문에 이들 센서스에 나타나는 勞動力 參加率을 서로 比較하는 데는 難點이 따른다. 그러므로 今後의 센서스는 이 點을 고려하여 調查時期를 一致시킬 必

要가 있다.

勞動力 接近方法이 準據期間中の 實際經濟活動에만 關心을 가지며 收入을 위해 1時間以上 일한 사람을 모두 經濟活動人口로 간주함으로 無報酬 家族勞動者를 가진 家族產業이 優勢한 韓國經濟에서 家族成員, 특히 女子를 勞動力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問題가 생긴다. 이러한 概念的 難點을 解決하기 위해서는 無報酬 家族勞動의 性格을 規則性, 次要性 및 量에 따라 細分할 必要가 있다. 그러나 1963~1970年의 年例報告書에 나타난 女子의 勞動力 參加年平均比率은 一定하게 維持되고 있다. 이러한 事實은, 비록 애매하기는 하지만, 報告傾向에는 상당한 一貫性이 있고 따라서 센서스나 調查資料를 사용하여 어느정도 이들 無報酬家族勞動者에 대한 意味있는 分析을 할 수 있다는 假定을 可能케 한다. 앞으로의 調査에는 이들을 구체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項目이 必要하다.

農業部門의 勞動力 參加率은 季節에 따라 심하게 變하나 就業率및 失業率은 대체로 一定하다. 就業率의 季節的 變異는 農業部門보다 非農部門에서 더욱 심한데, 이는 勞動力 參加率은 失業水準보다는 就業水準에 의해 決定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農村地域의 就業率이 一定한 것은 就業率이 職業需要보다는 職業機會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反面 都市의 就業率은 勞動需要에 민감한 反應을 보인다. 따라서 都市와 農村의 失業과 就業問題는 分離시켜 취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農業이 優勢한 經濟에서는 就業者와 失業者의 區分이 명확하지가 않다. 이 때문에 1960年과 1966年 센서스에서는 就業을 完全就業과 部分就業으로 區分하였다. 결국多數의 女子就業者가 部分就業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就業者의 상당 部分이 部分就業이라는 것은 韓國에 있어서 勞動의 市場檢證性이 엄격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며 就業者가 實際 일한 시간에 대한 더 많은 資料가 要求된다.

勞動力 參加의 廣汎한 季節的 變異와 勞動時間에 대한 不完全 利用勞動은 潛在失業 또는 僞裝失業이라는 새로운 概念的 導入을 必要로 한다. 이는 각 產業分野에서 生産性에는 영향을 주지않고 除去될 수 있는 勞動力을 意味한다. 따라서 이들의 勞動力을 完全히 利用할 수 있는 職業機會의 확대라는 政策的 問題가 여기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성급히 이 概念을 適用할 수는 없다. 韓國의 農業및 서비스部門에 있어서는 대부분 家口가 生産單位로 되어 있다. 이들 家族農業이나 家族事業에 必要한 勞動은 家族이나 親戚, 親知等の 人力으로 충당되며 勞動市場을 통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의 假定에 따른 潛在失業概念的 使用은 잘못이며 그릇된 政策을 낳을 우려가 있다.

勞動力 接近方法의 長點은 失業의 測定에 있지만, 農業이 大部分인 人口에 適用될 때 이는 信賴할만한 測定方法이 되지 못한다. 農村地域에서는 사람들이 賃金を 받으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勞動力 규모의 측정은 용이하지가 않다. 더 나아가 노동력 접근방법이 定義하고 있는 失業者란 農村에서는 實際로 存在하지 않는다. 즉 農業이 家族單位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過剩勞動은 비록 完全就業의 형태는 아니나 家族所得에 參與하게 되고 계속 家族農業에 남아있게 된다. 이러한 點에서 볼때 失業의 明確한 概念規定이나 그에 대한 論議는 어려운 일이다. 開發途上國家에 있어서는 또한 都市地域의 勞動人口比率이 增加하고 農村地域의 日傭勞動者의 比率이 增加함에 따라 失業은 상당한 問題가 되고 있다. 이들은 家族으로부터 財政的 도움없이 完全하게 失業의 狀態에 놓여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範疇의 失業에 대한 正確한 測定은 기존의 概念裝置로는 不可能하지만 政策的 措置와 관련된 社會問題로서 심각한 問題를 提起한다. 韓國의 경우 農村人口의 大規模 都市流入으로 인해 都市에

있어서의 失業은 심각한 社會問題가 되고 있다.

테크놀로지가 급격하게 發達하고 있는 非農產業에 있어서 賃金規模는 熟練의 정도와 訓練水準에 의해 광범하게 分化되는 傾向이 있다. 教育은 職業訓練 뿐 아니라 職業의 選擇에도 영향을 주어 教育받은 사람은 위신있는 職業을 구하고자하는 傾向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威信있는 職業은 教育의 확대에 비례하여 확대되지 않기 때문에 教育받은 人力은 그 需要를 능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失業은 점차 非農部門이나 都市地域에서 現實的 問題가 되고 있다. 1960年과 1966年 센서스에 의하면 郡部보다 市部の 失業率이 훨씬 높다. 또한 市部の 失業率을 非農部門의 失業率과 比較하면 前者가 後者보다 男女 모두 各 年齡集團에서 높은 傾向을 보인다. 失業率의 地域的差異는 失業者가 家族과 함께 머물지 않고 職業을 찾아 都市로 移住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촉진된다.

失業率이 最年少集團에서 가장 높고 年齡이 높아질수록 급격히 떨어지는 事實에 주의할 必要가 있다. 이 것은 學校를 졸업하거나 勞動年齡에 달해 이제 막 勞動市場에 들어온 젊은이 중에 失業者가 많기 때문이다. 年齡의 증가와 더불어 失業率의 급격한 감소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실업자가 취업될 기회가 점차 커져감을 나타낸다. 따라서 失業者의 數는 職業을 구한 期間에 의해 分類될 必要가 있다.

1960年과 1966年의 經濟活動人口의 教育水準과 失業水準間의 關係를 分析함으로서 教育의 확대와 관련된 失業問題를 考察할 수 있다.

1960年 市部の 失業率은 17.5%로 全國水準인 7%를 훨씬 上廻한다. 市部에서의 教育水準은 失業率과 明白한 關係를 보인다. 高等學校까지는 教育水準이 높아질수록 失業率도 증가한다. 그러나 大學教育을 받은 失業者의 比率은 初等教育을 받은 사람보다 약간 높을 뿐이다.

1966년에는 1960년에 비해 無學者의 經濟活動人口比率이 상당히 감소되었다. 失業率에 있어서도 無學의 男子경우에는 거의 變化가 없는데 비해 女子의 경우 급격한 감소를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男女別 失業率은 教育有無에 따라 매우 對照的이다. 失業率은 初等教育을 받은 사람들 보다 中等教育을 받은 사람에 있어서 더 높다. 한편 高等教育을 받은 사람의 就業率은 中等教育의 경우보다는 약간 낮으나 그래도 初等教育보다는 훨씬 높다. 中等教育以上에서 教育水準이 높아질수록 失業率이 低下하는 原因은 앞으로 규명되어야 할 研究課題이다. 여하간 失業은 中等教育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다는 高等教育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덜 問題가 되는 것 같다. 高等學校의 教育이란 그 자체 實用的 目的을 갖기 보다는 初等教育의 延長으로 產業이 要求하는 技術을 提供하지 못하고 있다. 實用的 經濟的 觀點에서 볼 때 大學教育도 마찬가지로 缺點이 있으나 大學教育을 받는 사람은 年齡等의 理由로 職業에 더 많은 關心을 보이게 되고 배우는 것을 장래 職業과 연결시키려는 努力을 하게 된다.